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//www.mke.go.kr
2011년 3월 21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정석진 중국협력기획과장, 김봉석 사무관(2110-4856) 이승우 철강화학과장, 이길준 사무관(2110-5642)	

중국 내수시장 진출 본격화

– 포스코, 중국 광동성에 자동차용 도금강판공장 착공 –

– 중국 서남부지역 대개발의 거점인 운남성과의 경제협력 도모 –

□ 지식경제부 안현호 제1 차관은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'11.3.21(월)-23(수)간 중국 광저우(廣州) 및 쿤밍(昆明)을 방문함

□ **지식경제부 안현호 차관은** '11.3.21(월) **중국 광동성 불산시 순덕구**에서 정준양 포스코 회장, 초옥방(招玉芳) 광동성 부성장 및 현지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**『포스코 도금강판 공장(CGL)* 착공식』에 참석**하였음

* CGL(Continuous Galvanizing Line) :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공정

○ 이번에 착공하게 된 **광동성 CGL**은 **중국내 첫 자동차용 도금강판 생산기지**로, 늘어나는 **중국 도금강판 수요을 충족**시킴으로서 **중국 시장공략을 통한 철강업계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시발점**이 될 것임

* 포스코는 **총 3억불을 투자**하여 **'12년 12월 완공**하게 되며, '**13년 30만톤 생산을 시작으로 '16년까지 45만톤**을 생산할 계획

○ 생산된 제품은 BYD(중국 전기차 생산업체), 광주 토요타, Media, Galanz 등 **중국내 현지 자동차·가전 기업에 조달할 예정**임

□ 안차관은 축사를 통해 **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**이자, **중국내 한국의 제 2교역대상지인 광동성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**하면서,

○ 금번 착공하는 **포스코의 아연도금 강판공장**은 자동차, 가전제품에 쓰이는 철강재의 공급기지로, **중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수반되는 고급 철강재 수요를 충족**시킬 것이며,

○ 궁극적으로는 최종 제품인 자동차와 냉장고, 에어컨 등을 쓰는 **중국 소비자의 만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**

□ 이어서 22일에는 **'중국내수시장진출촉진단'**(24개 기업, 한국무역협회 주관)을 이끌고 운남성 곤명시를 방문하여, **중국 서남부지역 대개발의 거점인 운남성과의 경제협력을 강화**하기 위한 '무역투자상담회 및 기업간담회' 등을 개최함

○ 금번 행사는 중국이 내수시장을 활성화함에 따라 **우리 제품의 수출 판로를 확대함과 동시에 중국 제품을 적극 구매**함으로써 **한중간의 상호교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성공적인 모델**(win-win)이 될 것임

□ 이날 **안차관은 운남성 구차오시(顾朝曦) 부성장과의 면담**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에 비해 한국과 운남성의 무역 및 투자규모가 미미*함을 언급하면서 향후 **운남성 역점 프로젝트 등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을 증진**해 나갈 것을 희망함

* '10년 한-운남성간 무역액은 134백만불로 **한중 무역액의 0.4% 수준**, 우리기업의 **對운남성 투자는 40건, 3,154백만불로 중국 전체 투자의 2%수준**(10년 누계)

□ 한편, 지식경제부는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12차 5개년 규획('11~'15)을 통해 확정된 중국 '내수확대 정책' 등을 적극 활용하고, 한중간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**중국 주요 성시별 차별화 된 협력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**

참고1 POSCO 강판공장 광동성 투자진출 현황

□ 추진 배경

○ 중국은 **자동차 생산실적 세계 1위**로 자동차산업의 성장에 따라 **고급도금강판 시장이 성숙**해있으며, **큰 성장 잠재력** 보유

* 중국 자동차 생산규모 : ('09) 13백만대→('15) 20백만대→('20) 44백만대 전망
* 천명당 차량 보유 현황('09) : 중국 23대, 한국 264대, 미국 439대

○ 품질 등의 이유로 포스코 **중국 진출에 대한 요구**가 증가하고, 중국 정부의 국산화 독려정책으로 **소재의 현지 조달이 확대 추세**

□ 사업 개요

○ 사업내용 : 중국내 자동차용 도금강판의 판매 확대를 위해 **순덕포항강판***의 증자사업으로 도금강판 설비 신설

* '97년 10만톤 규모 도금강판 공장에서 현재는 28만톤 규모 전기강판 공장임

○ 위치 : 광동성 불산시 순덕구 (순덕포항 서남측 20km 거리)



○ 규모 : 연 45만톤 (자동차용 고급도금강판)

○ 총 투자비 : 약 3억불 (운전자금 포함)

○ 건설기간 : '11.4월 ~ '12.12월 (20개월)

○ 인력 계획 : 230명 수준 (파견직원 13명)

○ 판매 계획

구분(단위 : 천톤)	2013	2014	2015	2016
제품 판매량	300	400	450	450
– 자동차용	50	150	250	300
– 가전일반	250	250	200	150

* 자동차용 도금강판은 품질 인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, 점차 증량

○ 소재 조달 : 국내 포스코에서 35만톤, 포스코베트남에서 10만톤 공급

□ 추진 경과

○ '08. 7 : 사업투자 MOU체결

○ '09. 1 : 사업 F/S 보고서 광동성 정부에 제출

○ '09.11 : 사업부지 및 인프라 방안 확정

○ '10.11 : 부지공사 착공

참고2 중국 CGL 설비능력 및 도금강판 현황

□ 중국 자동차용 CGL 설비능력 현황 및 전망

○ '09년 중국내 자동차용 CGL 설비 능력은 4.8백만톤으로, '12년에는 6.4백만톤 전망

구분(단위 : 천톤)		가동 설비('09)	계획 설비('12)
보강 집단	보강	1,200	
	BNA	400	400
	GJFE	400	400
안본 집단	안강	400	
	보강	400	
	TAGAL	800	
무강집단		400	
마안산강철		400	
수도강철		400	400
한단강철			400
소계		4,800	6,400

□ 중국 도금강판 및 자동차용 강판의 수급 현황 및 전망

○ 일반 아연도 강판 수급 현황 및 전망

	2008	2010	2012	2015	비고
수요	1,412	1,684	1,975	2,402	7.9%
공급	1,350	1,943	2,051	2,336	8.1%
과부족	△62	259	76	△66	

○ 자동차용 강판(CR/GI) 전체 수급 현황 및 전망

	2008	2010	2012	2015	비고
수요	819	976	1,177	1,393	7.9%
공급	754	877	1,080	1,377	9.0%
과부족	△65	△99	△97	△16	

○ 자동차용 도금강판(GI) 수급 현황 및 전망

	2009	2010	2012	2015	비고
수요	219	249	296	364	8.8%
공급	132	154	216	276	13.1%
과부족	△87	△95	△80	△88	

참고3 POSCO-광동성간 MOU 체결

□ 5개 협력 부문 발굴

○ **철강, EV(전기차), 소재사업, 녹색신도시, 에너지 등**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제휴·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, 검토할 계획

* 철강 부문은 현지 제철소와의 협력, 신규 철강투자 확대 등이 검토 대상

□ 업무연락체제 구축

○ 광동성에 진출한 포스코 현지법인의 **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**하고, **투자와 운영 문제를 해결**하기 위한 필요

○ 광동성 정부와 포스코는 광동성 대외경제무역합작청과 포스코-차이나를 책임부서로 하여 **상호 업무연락체제를 구축**

□ 정보 및 인원 교류체제 구축

○ 광동성과 포스코는 **정보를 제공**하고, 정기·비정기적으로 **인원을 파견하는 교류체제 구축**으로 상호지원과 공동발전을 도모

- 광동성 정부는 제조업 발전규획 등 **정책에 대한 정보**를 제공하고, 포스코는 **광동성 내 투자 방향과 프로젝트 정보**를 제공

□ 프로젝트 합작체제 구축

○ 광동성은 포스코의 **지역본부 설립** 및 R&D, 운영, 구매, 물류, 교육센터 등 **사업 관련분야로의 확장을 지원**

○ 광동성의 자동차 제조기지, 장비 제조기지, 첨단소재 기지, 철강 기지에서 추진하는 **포스코의 사업 지지**

□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제조에 대한 공감대 형성

○ 광동성 정부는 에너지 절감, 오염물질 배출 감소와 지속가능한 모델을 추구하고, 기술혁신 및 환경측면에서 포스코의 노력지지

○ 양측은 첨단 친환경 도시건설, 친환경 자동차, 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